

사우회 제6대 회장에 이연현 회원 취임

2월26일(금)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회원 2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연현(편제) 회원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MBC PD로 재직하는 동안 ‘전원일기’, ‘수사반장’등 굵직한 드라마의 연출자로 명성을 날렸던 이 신임회장은 충주MBC 사장과 제작본부장을 역임했고 2008년부터 4년간 사우회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와 각 부문 부회장, 이사들과 함께 회장의 지명을 받은 이용우(관리) 회원을 사무처장으로 선임했다.

총회는 2015년 결산과 새해 예산 3억 8,680만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새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2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보험알선 수입과 MBC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임원이 개선되는 이번 총회는 공증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증인가범무법인의 설경수 변호사가 참석해서 총회 진행 상황을 끝까지 지켜봤다. 사우회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최근 발간한 단행본 'MBC에 묻어둔 이야기' 한 권씩을 소정의 선물과 함께 전달했다.



〈사우회 신임 임직위 명단〉

감 사 : 이해결(업무) 김세하(기술)
부 회 장 : 이재휘(편제) 임주완(ANN)
박종규(기술) 이용구(업무)
신건옥(관리)
신대근(보도-**상임**)

이 사 : 신낙균, 이기호(편제)
양영철, 윤홍섭(보도)
양진수, 이현우(ANN)
정재순, 최 천(기술)
고영일, 한귀현(업무)
최동윤, 조승필(관리)
사무처장: 이응우(관리)

문화보험 새 대표이사에 신대근 부회장

문화보험은 2월17일(수) 사우회 사무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결

산과 새해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문화보협 올해 예산은 1억 7,130만

"회원을 위한 좋은 친목의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MBC사우회 선배님과 동료 그리고 후배회원 여러분.

부족한 서를 MBC사우회 제6대 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MBC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내온 30년의 세월을 반추하게 되는 큰 영광인 동시에 이 중대한 소임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1990년 사우회가 창립된 지 어느덧 26년
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우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 그리고 우리의 고향 MBC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오늘의 발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임 김수량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기울인 각별한 노력으로 원만한 재정 운영과 함께 사무실이 확장되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었는가 하면,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MBC에 묻어둔 이야기"를 출판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3년 임기의 저희 새 임원진은 전임
자들의 업적을 잘 승계하고 발전시켜 나가

는 일을 첫째로 하고, 둘째로는 회원님들이 사우회에 보다 더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 개발할 것이며, 셋째로 기존 동호회 외에 창의적이고 재능기부적인 새로운 개념의 동호 활동을 발굴해서 더욱 참신한 분위기의 사우회를 가꾸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우회 회원은 모두 1,436명입니다. 참고로 본사의 직원 수는 연봉직, 계약직을 제외하고 1,347명입니다. 우리 회원 수가 본사 직원 숫자 보다 89명이 더 많습니다. 해마다 회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우리 사우회는 조만간 거대한 친목 단체가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사우회 운영은 회원 증가 속도를 예측해서 대비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해질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새 임원진은 이러한 정황을 깊이 인식하고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에게 사랑 받고 후진으로부터
존경 받는 사우회, 무엇보다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보다 좋은 친목의 쉼터가 되
는데 어그리집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MBC사우회장 이연현

원이다. 문화보험은 또 사원총회를 2월 26일(금) 오후 2:00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었다. 이날 사원총회에서는 사우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신대근, 이용규, 임

주완, 이재휘, 박종규, 신견옥 회원을 문화보험 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신대근 이사를 만장일치로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경남 사랑’ MBC 경남
경남아~사랑해

생방송 ‘건강클리닉’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MBC 경남 & RKB 마이니치
방송사 해외공연 공동주최

FM 아산의 아침
영재와 지인
좋은 아침
특별 뉴스쇼
골든디스크
오늘도 건강하세요
휴게음 오후 2시
수베디의 랩트랩 신
장오의 희망곡
토요일의 음악여행

MBC 경남 뉴스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생방송 ‘건강클리닉’
골든디스크
다큐에세이 ‘여기 이사람’
천국시대
서한지 프로그램 ‘보물상자’

MBC 경남은 準 KEY社를 지향합니다.

사우회 봄철 행사 일정

등산 4/20(수), 낚시 4/29(금),
단합대회 5/18(수), 골프 5/23(월), 바둑 6/2(목)

사우회 봄철 행사는 등산클럽이 테입을 끊는다. 등산대회는 4월20일 수요일 오전 10:00부터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다. 낚시대회는 4월29일 금요일 오전 6:30부터 시작하는데, 등산대회 코스와 낚시대회 장소는 추후 엽서로 통지한다. 회원단합대회는 사우회 창립 기념

일인 5월18일 수요일 오전 11:00에 양주 문화동산에서, 골프대회는 5월23일 월요일에 진천 에머슨CC에서, 바둑대회는 6월2일 목요일 오전 10:00부터 사우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회원 산업시찰(문화탐방)은 6월16일 목요일로 날짜가 잡혔다.

3社 사우회 바둑대회 3월 21일 개최

MBC-KBS-SBS사우회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반상의 실력을 겨루는 제4회 3사 사우회 바둑대회가 KBS 주관으로 3월21일 월요일 오전 10:00부터 여의도 송천기원(02-785-0112)에서 열린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고위전에 2명, 대표전에 4명 등 사우회별로 6명씩 출전해 예선리그를 벌인 뒤 결선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MBC사우회는 최고위전에 한박무-이유호 회원, 대표전에 김진홍-임준석-이선재-최동윤 회원이 대표로 선발돼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3사 사우회 바둑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3월9일(수) 여의도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진행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사회, 새해예산안 등 승인

사우회는 2월19일(금) 사우회 사무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 및 새해 예산(안)과 새로 선임된 부문별 임원 안을 수정 없이 승인했다.

이날 김수량 회장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사들에게 감사표현을 올리고 올해 정기총회를 끝으로 퇴임하는 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추천 초빙교수

류종현(보도)-부산대
윤경진(편제)-명지대
선동규(보도)-대전대

이상로(보도)-전북대
송재종(보도)-차의대
차경호(보도)-인천대



2016 MBC 관계회사 신규 임원 선임

MBC는 3월 2일~4일에 관계회사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신규 임원을 선출했다.

춘천MBC 대표이사 사장 송재우
안동MBC 대표이사 사장 안택호
MBC아트 대표이사 사장 김갑수

청주/충주MBC 상무이사 박민순
MBC경남 상무이사 강병호
대구.안동.포항 상무이사 이종현
광주.목포.여수 상무이사 정성채
MBC플레이비 이사 김일곤
MBC아카데미 이사 김인수

태극마을에 사는 즐거움



오학균(기술)

아침이면 이름 모르는 새가 조잘 조잘 거린다. 새들과 함께 이런 상쾌한 아침을 맞은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이곳 강원도 홍천에 새 둥지를 튼 것이 었그제 같은데 세월이 빨리도 지나간다. 직장생활에 바빴던 시절 나의 취미는 낚시였다. 찰랑이는 물결따라 흔들리는 대 끝을 바라보노라면 어제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제작업무에 종사하였기에 항상 시간에 쫓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밤샘하기 일쑤였고, 여럿이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일하기에 한 사람의 작은 실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신경은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지시를 해야 했고 항상 확인점검이 필요했다. 일렁이는 잔 물결위에 초릿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제의 일 뿐 아니라 일주일 전의 일까지 선명하게 차례로 기억하게 되는 여유의 시간이 바로 낚시다. 친구들과 함께 물가에 오면 행복했고 쉬는 날만 되면 혼자라도 낚시를 해야만 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겐 지금도 미안하지만 그때 그랬다.

1998년 이른 봄, 강원도 홍천으로 낚시를 오게 됐다. 흰 모래밭이 학교 운동장처럼 넓고 밭에 밟히는 모래는 예사 모래가 아니었다. 모래의 굵기가 마치 체에 거른 듯 일정하였고 색깔도 산뜻한, 그야말로 백사장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 혼자의 외로운 낚시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낚싯대를 보며 내일의 프로그램을 머리에 그려 본다. 방송시간대가 오후 8시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이름도 '쇼2000'으로 바뀌었다. 미리 받은 녹음테이프를 출퇴근 시간에 계속 들어왔던 터라 멜로디와 리듬 가사는 잘 안다. 합창단과 무용단의 등퇴장 그리고 배경 세트의 변화를 무슨 색깔로 할까 궁리 중이다. 이때 낚싯대가 흔들거렸다. 바람이거니 생각하는데 받침대에서 툭 떨어진다. 앓아하는 순간 낚싯대가 강 안쪽으로 주우욱 빨려 들어갔다. 고개를 들어보니 둘러싼 산 또한 비경이다. 여태 물만 보았지 산은 보지 못했던 말인가. 어느덧 홍천강은 이제 나의 휴식과 여유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때 결심했다. 그래, 이곳에서 살자!

봄이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봄나물이 자라고 여름엔 반딧불이 떼를 지어 나른다.

하늘엔 별이 초롱초롱하고 소나기가 내린 후 쌍무지개가 산에 걸린다. 낮엔 밭에 나가 땀 흘리고 밤엔 좋아하는 낚시를 실컷 즐긴다. 농사일이 라곤 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지금은 멘토가 되어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수원의 농진청(지금은 완주로 이사했다), 춘천 농업기술학교에서 농사공부를 했다. 우리 마을 이름은 고드래미. 행정명은 홍천군 남면 남노리다. 밭에 은행나무를 심어 가을이 되면 황금 이불이 온 밭에 깔리고 황금열매가 덩어리로 매달린다. 땅바닥에 누워 새파란 하늘을 본다. 코발트색에 새하얀 구름조각은 예전에 내가 덕수궁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 "가을맛이 가곡의 밤" 그 때의 은행나무를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만든 나의 블로그 이름은 "고은농장"이다. 고드래미의 '고'와 은행나무의 '은' 머릿글자를 따서 '고은농장'이라고 이름 지었다. 홍천의 특산물 옥수수 농사도 해보고, 감자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은 거의 다 키워봤지만, 이제 주력농산물로 아마란스를 키운다. 5년 전 고령지연구원 홍수영 박사께서 종자를 주셨다. 건강관련 농산물이 요즘의 대세기 때문이다. 고드래미는 마을사람들이 정겹고 친절하여 다른 마을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마을앞 강으로 놀러오는 사람들도 많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많다. 나도 어느덧 고드래미 마을에 뿌리내렸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발전을 계획해본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전략이며 10년 후의 마을 모습이다. 리더십과정을 마친 10개 마을의 경쟁에서 우리 고드래미가 1등을 했다.

홍천군 농특산물에는 태극문양의 너브내 마크가 붙어있다. 고드래미 마을을 감싸고 휘돌아 흐르는 홍천강의 모양이 태극문양이요, 이것을 형상화 한 것이 너브내 마크다. 우리 마을 발전계획에는 마을이름을 태극마을로 정했다. 처음 낚시 와서 내가 돌아보며 희망을 가졌던 산이 금학산이요, 환상의 백사장이 홍천강이다. 금학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태극문양의 마을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고드래미 마을이다. 전국 제일의 태극문양 고드래미마을. 나는 홍천군의 상징인 태극마을에 사는게 자랑스럽다.

경 · 조사

■ 팔순 ■

김병철(전주)04/04 정호준(대구)04/10 장우식(편제)04/23 최승일(보도)04/28
조동근(기술)05/15 염재용(전주)05/24 장효상(보도)05/30

■ 고희 ■

金丁洙(미주)04/11 이범수(업무)04/21 박종진(편제)04/24 장두형(대전)04/25
김성한(관리)04/27 노홍식(편제)04/29 이근철(편제)05/03 이건식(관리)05/11
강정수(관리)05/15 김현동(편제)05/18

■ 회갑 ■

홍춘표(관리)04/02 배대윤(보도)04/03 정홍보(보도)04/03 박선영(보도)04/06
최현곤(기술)04/07 박영민(보도)04/10 봉현숙(편제)04/10 崔宇喆(편제)04/26
조학동(기술)05/03 최경미(ANN)05/05 이은용(기술)05/07 문장환(기술)05/10
류종현(보도)05/12

■ 결혼 ■

강복주(대전)차녀01/30 이상욱(관리)딸01/31 최호룡(편제)장남02/13
이교윤(편제)장남02/27 백성원(관리)장녀02/28 신기준(기술)장남03/01
김영균(관리)장남03/12 유봉희(관리)차남03/12 최세훈(보도)장남03/12
김중윤(기술)장남03/12 권재욱(관리)장남03/27

■ 부음 ■

최호철(관리)모친상01/21 박성배(편제)모친상01/23 이의린(관리)모친상01/29
신동수(관리)장모상02/08 이정화(편제)부친상02/10 허경희(관리)시모상02/11
이기섭(관리)장모상02/11 오원섭(관리)장인상02/17 박용규(기술)장인상02/24
홍신숙(관리)시부상03/02 김상기(보도)장모상03/05 이종채(기술)모친상03/06
장영효(관리)장모상03/10

〈알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사우회보에 구체적인 주소지를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소가 꼭 필요하신 분은 사우회 사무처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金大官(관리)	010-9199-5879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金度源(보도)	010-8997-3085	양천구 신정로 260
金鍾振(편제)	010-9192-4242	강서구 염창동 300
魯永男(기술)	010-9199-5818	강남구 역삼로 307
朴相俊(관리)	010-8876-5004	대전시 서구 갈마로 212번길
朴龍圭(기술)	010-3746-2623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52
朴正根(편제)	010-9274-5842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75번길
朴智會(편제)	010-9199-5675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0
奉弼皓(보도)	010-8997-2613	노원구 통일로237번길 41
宋在祐(보도)	010-9105-2134	양천구 목동동로 130
申善熙(기술)	010-8915-2435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2
吳文煥(편제)	010-7110-1972	용산구 효창원로 17
吳成秀(편제)	010-9199-5702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禹大熙(보도)	010-8931-3829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
尹 津(기술)	010-9019-1100	양천구 목동서로 2길 22
李京姬(관리)	010-7110-2541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3길
鄭南泳(관리)	010-9199-5744	강남구 역삼로 307
鄭玉均(기술)	010-8991-4034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
鄭昌男(보도)	010-5382-0085	성동구 서울숲2길
趙德衡(기술)	010-9080-3582	동작구 신대방1동 707
崔謹鎭(기술)	010-5221-7911	강남구 논현로 205

■ 평생회비 ■

박정근(편제)01/14	오성수(편제)01/15	김대관(관리)01/18
김도원(보도)01/18	윤 진(기술)01/18	정옥균(기술)01/21
봉필호(보도)01/22	신선희(기술)01/25	박상준(관리)01/26
노영남(기술)01/26	정남영(관리)01/26	최근진(기술)02/02
조덕형(기술)02/18	박지희(편제)02/23	이경희(관리)02/23
김종진(편제)02/29	오문환(편제)02/29	우대희(보도)03/07
정창남(보도)03/08	송재우(보도)03/09	

■ 연회비 ■

1월 : 강유현(16) 권태규(16) 권황택(16) 김광곤(08~20) 김광안(16)
김명수(21~23) 김무길(15~16) 김상호(16) 김윤근(16) 김정수(보도,16)
남기두(16) 박기윤(16) 박세립(16) 박준평(16) 배상호(16)
백낙왕(16, 80세납부끝) 서정호(16) 성경섭(16) 손영조(16, 80세납부끝)
심준보(16~17) 엄기원(16) 엄영수(16) 오남렬(16) 이기주(93~15)
이상원(대구,16) 이승재(16) 이연구(16) 이종화(16) 이하결(16)
임봉주(17~18) 임성전(16) 장기재(03~16) 전병욱(16) 정갑표(16)
정동영(대구,16) 정명환(16) 정봉일(16) 정상화(16) 조무영(16) 차명륜(16)
최호철(15) 홍신숙(16) 홍윤호(16) 황길수(18~25, 80세납부끝)

2월 : 강복주(16) 강철호(16) 강홍신(16~20) 광영범(16)故김광목(13~15)
김삼량(16~17) 김영균(16) 金榮日(16) 김점용(15) 김창동(16, 80세납부끝)
김철순(14~16) 김태숙(12~16) 김휴선(16) 남궁옥인(14~18) 노성석(16)
노영일(15~16) 맹석기(16) 박용규(16) 석종현(16) 신기준(15~19)
신무성(16) 안병태(16, 80세납부끝) 연규철(17) 유흥철(16) 이기호(14~16)
이방근(16~17) 이보근(19, 80세납부끝) 이성구(16) 이성호(13~16)
이연경 (16) 이영일(16) 이영호(16) 이재휘(14~18) 이한수(15~17)
이한식(15~16, 80세납부끝) 인우삼(17) 故장경(12~15) 장명호(16~20)
전지웅(16) 정경태(16) 정 균(16) 정영수(16) 정준모(16) 차기동(16)
차종식(16) 채규억(16~17) 표찬일(16) 하재물(16, 80세납부끝)
홍성기(16~20) 홍순영(16) 홍이표(16) 홍환식(14~15)

전화/주소 변경

감사 : 권해옥	서초구 방배로43길
편제 : 이승문	구로구 가마산로20다길
정명규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보도 : 구본학	경기도 가평구 설악면 미사리
구영희	강남구 논현로 205
노영일	경기도 시흥시 능곡중앙로 34
심원택	서초구 신반포로3길 19
이문노	인천시 계양구 형제봉길 50
장효상	010-9316-7415
기술 : 진성수	은평구 은평터널로 169-23
업무 : 이수극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관리 : 김희철	인천시 중구 하늘별빛로 66
신민철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이중형	하남시 덕풍남로 11
최인준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98
광주 : 이기주	010-9131-7604 강남구 삼성로 417
대구 : 배상호	010-8566-0980
대전 : 김태숙	하남시 덕풍공원로87번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창환(편제) 1월16일(토)
폐암으로 별세. 향년 69세.
1970년 TV PD로 입사하여
비서실장, 편성이사, 전무이사, 목포
MBC사장, 방문진 이사를 역임했다.



장 경(보도) 2월1일(월)
폐암으로 별세. 향년 74세.
신아일보를 거쳐서 1980
년 MBC에 입사하여 보도국 편집2부
장과 스포츠취재부장을 지냈다.



김순환(ANN) 2월4일(목)
호흡기질환으로 별세. 향
년 83세. 1962년에 입사하
여 MBC 본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전
주MBC 편성국장을 역임했다.



김광목(보도) 2월11일(목)
심부전으로 별세. 향년 76
세. 1969년 보도국 카메라
기자로 입사하여 영상카메라 부장을
지내고 1998년에 퇴직했다.

회/원/동/정



김재수(관리)

산문집 '울리지 않는 메아리'(사진)를 펴냈다. 2009년 고향인 강원도 양양 송암골로 귀향해 틈틈이 써온 글들이다. 산문집 '불혹의 나'와 '살며 생각하며' '할미소-화채봉은 말이 없다'에 이은 4번째 책이다.



변영우(편제)

2월5일 강릉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방송제작학과 부교수로 취임했다. 1학년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한국사진사' 등 영상제작의 이론과 실기를 강의한다.



신대근(보도)

사우회 상임부회장. 1월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최근진(기술)

구로디지털 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회사 '(주)LP하이'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유희근(보도)

청소년 적십자 사업후원회 부회장. 4년간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인간의 고난을 줄이고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재훈(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통신인프라부전파방송팀 매니저로 취임했다. 근무지는 강원이다.

사우회보 새 편집위원 선임

- 편제: 이기호(010-8915-2408)
- 보도: 양영철(010-9415-2397)
- ANN: 이현우(010-8126-1004)
- 기술: 최 천(010-4929-2260)
- 업무: 한귀현(010-9105-2210)
- 관리: 조승필(010-8991-4399)

동/호/회/소/식

한문동호회 회원 모집

한문공부동호회가 5년째를 맞고 있다. 지금은 주1회 (화요일 오전 10:00) 소학(小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3월부터 기초과정반을 새로 만들어 한문공부동호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 교재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이며 공부할 요일과 시간은 추후 결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사우회 02-722-7416 또는 권혁화 010-3739-0889)

'자연건강동호회' 발족, 뜬 시술 봉사 실시

무극보양뜸 창시자인 구당 김남수옹(102세)의 수제자로, 김 옹과 함께 효행봉사를 해 온 김용빈 회원이 그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해, 4월 초부터 '자연건강동호회'를 발족하고 사우회원들을 대상으로 뜬 봉사와 뜬 시술 교육을 실시한다. 사무처는 '자연건강동호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회 사무실에 간이침대 2대를 설치했다. 또한 3월 말부터는 회원들에게 이발 봉사도 시작하는데 이를 위

해 김용빈 회원은 최근 이용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획득했다.



〈구당 김남수 옹과 김용빈 회원〉

'캘리그래피' 동호회 회원 모집

사우회는 최근 인기 직종인 '캘리그래피'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캘리그래피'란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어원은 '아름다운 서체'라는 그리스어다. 동호회는 인원이 최소한 10명은 돼야 시작할 수가 있는데 현재 9명이 참여를 희망한 상태다. 회원님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 정인영

인간관계 트렌드의 변화



봉 현 숙(편제)

얼마 전, 오랜만에 후배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현장 미술스텝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어린 직원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텝 중 한명에게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으로 상처를 입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급기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제작 현장 스텝으로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많지만, 스텝들과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힘들다고 푸념을 했다. 그러다 보니 나이 어린 후배들이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이직을 하여 인력운영까지 힘들어지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미술 제작스

텝으로 1984년 12월에 MBC에 입사해서 2014년 4월 MBC 아트를 정년퇴직하기까지, 스텝들 간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입사 당시 의상실 직원은 7명이었다. 의상실 직원들은, 연기자든 물론 연출자를 포함한 제작스텝들과 '언니' '형' '아우'라 부르며 회사 안과 밖 어디서든 만나면 얼싸안고 반갑게 인사를 하였고, 집을 떠나 서울서 혼자 생활하는 스텝에게는 식사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 직원들 집 주변에 생활하기 쾌적한 집을 알선해 주기도 하는 등 친밀감과 정이 스며든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업무상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서로 양해하고 토닥여주며 신뢰와 정을 우선시 하는 관계였다. 이와 같이 가족 같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이 단출한 것이 이유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컬러 텔레비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86아시아게임, 88서울 올림픽대회 개최 방송시스템을 갖추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전문 부

서와 전문가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때는 호칭도 '선배' '후배' 또는 회사 기구 조직상 직위인 '차장' '부장' '국장'이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전문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업하는 동료 집단으로 변화했었다. 오로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 아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개선하는 분위기는 힘든 제작 현장도 동료라는 금지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다.

그 후 경영합리화에 의한 자회사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의 미술부문이 MBC아트로 이직하고, 외주제작 편성 비율의 의무적 도입, 종합편성채널 탄생 등 방송환경의 변화와 함께 제작현장의 인간관계도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전까지는 MBC라는 한 회사조직 안에서 프로그램별로 스텝이 구성되었었지만, 이때부터는 몇몇 회사의 직원들이 계약서에 의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모였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헤어지는 '갑과 을의 인간관

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제작현장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님' '~감독님' '선생님' '대표님' '실장님'등 다양해지고 신분의 벽을 쌓는 듯한 경직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제작현장의 외부환경은 날이 갈수록 녹록치 않다.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의 교류와 동료라는 공감대가 힘이 될 터인데, 이는 고사하고 비인간적인 언행이 난무한다면 스텝간의 견제는 더욱 심화되고 급기야 앞에서 언급한 어린후배가 겪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의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시대별 패션 트렌드의 경향을 정확하게 인지함은 물론이고 다가올 시즌에 대한 패션 트렌드의 경향도 예측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상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들에게 2016년 제작현장에서 엮어질 인간관계 트렌드의 변화도 제시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존중, 정, 소통을 컨셉으로.....

향로봉과 울릉도 그리고 홍도 생방송



임영규(기술)

7~80년대는 자체보유 Microwave (이하M/W)와 KT 전송망을 이용하여 TV 생중계를 했다. 당시 MBC는 장비나 인력 면에서 KBS에 비해 매우 열악했다. KBS는 KT망을 전용하여 지역 방송국과 Network를 구성하고 있었고, 자체 보유 M/W도 50여대나 돼서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역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생중계를 할 수 있는 반면, MBC는 10대도 안 되는 M/W에, KT망 사용은 사전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어야 했고 그나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대 도시 외에는 KT중계소와 M/W 접속이 되지 않아, 그 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생방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자체 전송망 구성을 하기 위해 높은 산에 무거운 장비를 메고 올라가서 2~3단으로 M/W를 설치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KBS에 항상 뒷북치기였다. 현장 중계 스태프들은 죽도록 고생을 하고도 비난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때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당한 서러움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M/W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KT가 사용하는 M/W를 분석해본 결과 중간주파수(IF 70MZ) 삽입장치가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기존 장비에 보완하기로 했다.

M/W 장비는 미국의 Terracom사 제품이었는데 크고 무거워서 기동성은 떨어졌지만 성능이 좋았다. 장비 인수인계 및 교육을 위해 미국의 엔지니어가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육 중에 뜻밖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은 국토가 광활해서 전송거리가 200~300km되는 M/W를 사용한다'고 했다. 200~300km라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M/W의 통달거리는 40~50 km밖에 안 간다는 걸 선배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장거리 중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장거리까지 전송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더니 'Terracom M/W에 Option 품목인 LNA(Low Noise Amplifier)를 삽입하면 전송거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계산자로 M/W 통달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 돌아갈 때 계산자와 등고선 프로파일 용

지를 주면서 '나중에 LNA도 한 개 보내줄 테니 시험해보고 좋으면 추가로 구매하라'고 했다. 그가 주고 간 계산자와 프로파일을 가지고 손에 익도록 연습을 했다. 한 달 후 LNA가 도착했다. 사무실에 한반도 입체형 대형지도를 걸어놓고 장거리 지점을 선택하여 모의실험을 여러 번 해봤다. 전송거리를 105km→185km→205km 단계적으로 거리를 넓혀 생방송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참고로 105km는 향로봉→용문산간, 185km는 울릉도→함백산간, 205km는 홍도→제주도 한라산간의 직선거리다.

1. 향로봉 최전방 초소 생방송

1984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그해는 한파가 몰아치고 폭설이 많이 내렸다. '동부전선 최전방 향로봉 국군초소에서 생중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보도국의 문의가 왔다. 연말연시가 되면 보도국에서 전방부대를 취재하여 '뉴스데스크'에 한 꼭지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올해는 생방송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전야 '뉴스데스크'에 연결하기 위해 김광용 차장 외 스태프들이 M/W를 뉴스VAN에 실어 향로봉 현장으로 출동하고, 나는 M/W를 수신하여 KT중계소에 삽입, 본사로 보내기 위해 용문산으로 올라갔다. 향로봉으로 출발한 팀은 산을 오르는 도중 계속된 폭설로 길이 막혀 군 장병들이 불도저와 삽으로 눈을 치우며 가느라 어둠이 내릴 무렵에야 향로봉 초소에 도착해서 M/W를 설치했다. 숨쉬기도 힘들만큼 기상상태가 악조건이었다. M/W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큰 돌로 삼각대를 짓누르고 근처 나무에 잡아매는 등 사력을 다 해 저녁 방송 한 시간을 앞두고서야 겨우 향로봉(1,296m)과 용문산(1,157m)간 105km 거리에 M/W가 성공적으로 뚫려 현장 그림이 깨끗하게 들어왔다. 현장 스태프들이 흑한을 무릅쓰고 노력한 덕에 크리스마스 전야 '뉴스데스크' 생방송은 차질 없이 나갔다. 생방송 도중 눈보라가 갑자기 휘몰아쳐서 초소대원이 인터뷰 도중 호흡곤란으로 10여 초간 말을 못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아무튼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2. 울릉도 생방송

1985년 8월. 울릉도에서 생방송이 어떻게 생각나서 KBS 중계부에 '혹시 울릉도에서 생방송이 가능한지, 계획이 있는지'를 넌지시 떠봤다. '울릉도와 강릉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M/W가

1단으로 안되기 때문에 동해상 중간지점에 헬기를 띄워 생방송을 해볼까 했는데 헬기 기장이 해상 바람이 세기 때문에 장시간 제공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기획을 했다가 포기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류근혁 중계부장, 이창호 부장과 협의한 뒤 울릉도 생방송을 해보자고 보도국에 제의했다. 보도국에서는 '그렇잖아도 울릉도 취재를 할까 하는데 생방송이 가능하다면 잘됐다'고 했다.

8월 말경, 이창호 부장 외 중계 스태프들과 보도국 취재팀이 울릉도로 떠나고 며칠 뒤 수신팀으로 조구현 사원이 강원도 함백산으로 출발했다. 울릉도로 출발한 스태프들은 동해상에 풍랑이 심해서 배 멀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울릉도 팀 도착에 맞춰 수신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용문산 KT중계소로 올라갔는데 함백산에서 연락이 왔다. 울릉도에서 그림이 깨끗하게 들어온다고 했다. 이 사실을 보도국에 알렸더니, 울릉도 주변 경관을 며칠간 취재하여 새해 아침 특집뉴스에 생방송으로 물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울릉도에서 M/W 개통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KBS에 알려져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원홍 사장이 TV 중계부장에게 '당장 울릉도와 독도로 가서 생방송을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용문산 KT직원이 울릉도에서 들어오는 MBC 그림을 보고 KBS에 정보를 흘렸던 것이다. 보도국에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럼 당장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생방송으로 연결하자'고 했다. 출장 간 팀은 아침방송을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조명을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현지에 출장 간 이창호 부장이 동향에 내려가 오징어잡이용 전등을 구입해서 조명을 밝히고 열심히 애쓴 결과 9시 '뉴스데스크'에 연결하여 한국 최초로 울릉도 생방송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쾌거였다. 울릉도의 아름다운 절경과 일출광경은 나중에 특집으로 방영되었다. 여담이지만, KBS는 동해 경비 중인 해군 구축함을 이용, 울릉도와 독도로 인력과 장비를 운반해 생방송을 시도하여 MBC의 뒷북을 쳤지만 심한 안개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오히려 경비중인 구축함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KBS 사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혼쭐났다는 딱한 사연도 있었다.

3. 홍도 생방송

1986년 연말쯤, 이창호 부장이 '홍

도에서 생방송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홍도와 한라산 새오름간 거리는 205km로 울릉도보다 20km 더 먼 거리다. 프로파일을 떠본 결과 이론상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혹시나 해서 행정전화로 홍도 里長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 한라산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노인들이 남쪽 바다 아득히 뽕모자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라산이 아니겠냐'고 한다. 보도국에 '홍도에서 신년 새해특집 생방송을 해보겠냐'고 제안했더니 '생방송이 가능하면 하자'고 했다. 부랴부랴 중계팀을 구성해 홍도로 떠나고 나는 제주도 한라산 새오름으로 갔다. 한라산은 바람이 세고 한겨울이라 추위가 대단해서 M/W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홍도에 간 스태프들은 도착해보니 전기시설도 없고 이장 집에 행정전화가 한 대뿐이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설날 마지막 날, 10여분간 M/W를 맞춘(swing) 끝에 그림이 깨끗하게 들어왔다.

새해 아침.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 일찍 새오름으로 올라가 M/W를 켜니 이게 웬일인가. 어제 잘 나오던 그림이 나오다 사라지다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불안하고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왜 이럴까 한참 고민했다. 아! 아침 일출 때 생기는 페이딩(fading) 현상이 아닐까 해서 좀 기다려 보기로 했다. 방송 한 시간 전쯤 태양이 솟고 안개가 걷히자 M/W가 안정을 찾았다. 휴~ 다행이다. '방송 중에 또 이러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KT 청약시간에 맞춰 제주MBC를 경유, 본사로 현장 그림을 보냈다. 아침 특집 생방송에 홍도 근처를 지나가던 부산 선적 화물선 선장의 새해 포부와 가족들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 그리고 홍도 주민들의 새해맞이를 5분여간 인터뷰하는 걸로 생방송이 무사히 끝났다. 그때의 생방송 5분은 왜 그리도 더디가는지, 내겐 여삼주如三秋 같았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가장 거리인 홍도-제주도간 205km 생중계를 끝으로 국내 오지의 생방송을 끝냈다. 초조하고 긴장도 많이 했지만 기쁨과 환희를 맛본, 보람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그 동안 중계스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몸으로 뛰어 KBS가 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동안 환희의 순간을 맛보았던 선후배 동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공을 돌리고 싶다.



김수현(金秀賢) 스토리

민용기(편제)

I

김수현은 못마땅하면 그의 드라마 대사만큼이나 총알처럼 쏘아대곤 했다.

“KBS보다 더 치사하고, 간사하고, 비열한게 MBC 사람들이예요. 지들은 뭐 최고의 지성, 엘리트, 똑똑한 척 하지만..... K같은 엉터리 작가를 단지 시청률 때문에 또 불러다 쓰고.....”

그는 20년을 한결같이 주옥같은 작품들을 써오면서 ‘MBC드라마 세우기’에 기동구실을 해온 작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20년이면 평생을 바쳐 일한 거나 다름없다. 그동안 그는 늘 MBC에 대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마음 한 한구석에 동거시키며 글을 써왔다. 사랑은 그가 처음 동지를 틀게 한 곳이라는 것,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은 구석이 있다’는 신뢰감이고, 미움은 ‘그렇게 흑사 당해 왔건만 사람을 겨우 이렇게 밖에 대접하지 않느냐’하는 섭섭함과 패심한 생각이 문득문득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다. 대접이란 돈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그는 여차피 최고의 값을 받아왔다. 방송계는 아무리 최고의 재능과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 작가, 탤런트, 연예인, PD든 간에 한두 번 실패하면 언제 뺄냐는 듯 매몰차게 돌아앉는 것이 그 생리다.

어느 날 밤, 자정이 훨씬 지나서 김수현의 전화를 받는다. 드라마 하는 사람들은 오밤중이건 새벽이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드라마 얘기에 밤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내일 회사에 나가서 계약금 전액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무슨 얘기죠?” 했지만 무슨 애긴지는 금방 알아차렸다.

“저 이제 MBC 하군 일 안 해요! 김수현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앞으로 KBS에 가서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하루 전날.

사장실에서 드라마PD, 간부들과 프리 토크하는 모임이 있었다. 최근 저조한 드라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를 끝내면서 이윤희 사장이 한마디 했다.

“내가 보기에 김수현이는 이제 갖

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오래 쓰다보면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인들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순간, ‘아차’ 했지만 이미 앞지른 물이었다.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금물이다.

게다가 실명을 거명하는 것은.....

II

김수현이 MBC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69년 1월이다. 그가 응모한 라디오드라마 ‘저 눈발에 사슴이’가 당선되면서 부터다. 이 드라마는 나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돼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MBC TV 개국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또한 이 작품은 3년 후인 1972년, 정문수 PD가 ‘무지개’라는 제목의 TV드라마로 제작 방송해서 좋은 평을 받는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같은 해 그의 최초의 일일연속극 ‘새 엄마’가 MBC TV의 전파를 타기 시작한다.



‘새 엄마’는 어느 복잡한 가정에 채취로 들어온 새 엄마의 역경과 행복을 담담하게 그려나간 드라마다. 당초 100회 방송 예정이던 드라마는 200회가 300회가 되고, 급기야 411회로 최장기 기록을 세우면서 1년4개월 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1972년의 시청률 1위, 다음 해 제1회 한국방송대상 극본상을 수상한다. ‘새 엄마’는 개국 후 계속 휘청거리던 MBC라는 새 방송 채널이 처음 시청자에게 감동적으로 각인시켜 준 드라마였다.



날개를 단 그는 이후 ‘수선화’(74년) ‘신부일기’(75년-한국방송대상 대통령상) ‘당신’ ‘행복을 팝니다’ 등의 흥 드라마와, ‘청춘의 덫’ 같은 멜로드라마

를 발표해서 70년대 MBC드라마의 부동의 성곽을 쌓는데 공헌한다.

김수현은 ‘TV드라마를 쓰기 위해 태어난 듯’한 작가답게 하룻밤에 꼬박 일주일 분 원고지 300여 매를 굵어대는 신들린 작가다. 70년대 내내 숨 돌릴 새 없이 드라마 쓰기에 ‘흑사’당한 그는 서너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충전이 필요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한다. 그 후 처음 선보인 것이 주말연속극 ‘어제 그리고 내일’이다. 산업사회 발전의 뒷안길에서 여전히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시작하기도 전에 진통을 겪어야 했다.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은 늘 진통이 따른다.

‘눈물이 보일까 봐’라는 제목을 작가가 제시한다. 드라마와 아주 딱 맞는 이미지다. 드라마나 영화의 제목 짓기는 ‘흥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해서, 드라마 분위기와 이미지가 맞으면서 시선을 끄는 제목 짜내기에 모두 몸살을 앓는다. 제목 짓는 전담 회사가 등장할 정도다. ‘눈물이 보일까 봐’는 PD, 프로듀서, 간부들 사이에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뜻밖에 사장이 제어하고 나섰다. 5공 초기였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는 것이었을까. 효자동을 의식한 탓인가. 사장은 제작에 관한 한 관대한 편이었다. 매우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여서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단지 제목 짓기에는 그 후에도 매우 까다로워 애를 많이 먹었다.

신문사 편집국장 출신의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밑에서는 웃어 넘겼다.

마魔가 낀 탓일까, 그 드라마의 새 제목 붙이기는 그 후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다가 예고방송이 나가기 몇 시간 전에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지어버린 것이 ‘어제 그리고 내일’이었다. 작가, PD가 이미 포기한 뒤였다.

드라마 시청률이 안 좋은 게 제목 탓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재미있으면 제목과는 상관없이 다 알아서 용케 찾아보게 마련이다. 아니 제목도 근사하게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작가나 PD의 리듬이 시작부터 깨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착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눈물겨운 모습’이 바로 제목 그대로의 감동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비틀거리며 끝난 셈이다.

‘김수현이는 이제 갔다’고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즈음이다. 그 말이 본인의 귀에 언제 들어가는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방송가 켜는 꽤나 말을 즐기는 곳이고 비밀이 성립될 수 없는 일종의 특별구特別區다. 방송인들, 특히 드라마 하는 사람들은 애, 어른, 탤런트, PD 가리지 않고 모두 가슴에 불과 한을 동시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뭔가를 들으면 당장 뱉어버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족속’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자존심을 건드리자 그는 펄펄 뛰었다. 작가가 흔들리는 것은 방송에 이로운 게 없다. MBC 드라마가 늪에 빠져있는 시기였고, 그는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긴 침묵과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칼을 갈고’ 있는 때였다.

다음날, PD와 담당 간부가 그를 이 해시키려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그는 가끔 견잡을 수 없는 날카로운 신경의 소유자이긴 하나, 뒤는 웬만한 남자보다 깨끗했다. 감성적이고 이치적이고 솔직하고 경구가 밝았다. 미우나 고우나 MBC의 입장을 이해했다.

얼마 후 1984년 5월부터 그의 새 주말연속극 ‘사랑과 진실’이 KBS가 아닌 MBC에서 방송이 시작된다. ‘사랑과 진실’은 초반부터 시청자의 가슴을 휘어잡고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다. 같은 해 방송된 작가 신봉승의 ‘설종매’와 더불어 MBC드라마는 높이 솟아올라 다시 드라마 명문의 이름을 되찾는다. 작가는 MBC에서 ‘김수현은 죽지 않았다’를 보여주려는 듯 독기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랑과 진실’은 나중에 ‘사랑과 야망’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랑이 뭐길래’까지.....





(김수현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경박하다. 깊이가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등등. 흠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비난이 많은 것은 '찬사'를 받고 있다는 다른 의미의 반증이기도 하다. 인기 없는 드라마는 아무도 물어뜯지 않는다.)

'사랑과 진실'이 한창 방송 중이던 어느 날, 이웅희 사장이 드라마국 간부들을 불러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다. 식사 후 느닷없이,

“우리, 차는 평창동 가서 마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깜짝 제안했다. 평창동은 작가가 사는 마을이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뜻밖의 손님들을 김수현은 정성을 다해 맞이한다.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어느 쪽도 지난 날의 해프닝을 입에 병긋도 하지 않았다. 그 날의 차 맛은 무척이나 달고 일품이었다.

Ⅲ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사랑한다. 시청자의 시청행태조사를 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드라마에 대한 편식이 으뜸이다. 특히 연속드라마에 대한 집착은 외골수에 가깝다.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히 편성에서 일일연속극, 미니 시리즈, 주말연속극 등은 늘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매년 봄과 가을 두 번 실시하는 개편의 성공 여부는 이들 연속드라마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연속극이 방송사의 최대 전략프로그램으로 부각된 것이 그런 까닭이다.

연속드라마가 저조하면, 방송사마다 최고의 무게를 두는 9시 종합뉴스나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쇼, 코미디, 다큐멘터리와 기타 변방의 모든 프로그램 빛깔이 빛을 잃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방송 전체의 시청률은 물론, 방송사의 이미지도 삼시간에 하락한다. 밖에 나가면, '너희 방송은 요새 왜 그래? 영불 게 없어' 해서 김이 더 빠진다. 이것은 광고유치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의 경영에 타격을 준다.

연속드라마가 살아나면 상황은 급변한다. 방송 분위기가 팽팽해진다. 여타 프로그램의 물기도 오르고 시청률도 상승한다. 외부에서 한 때 '저질 프로'의 대명사처럼 물리기도 했던 이 연속극이 내부에서는 편성을 리드하

는 향도이며 선도자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텔레비전을 시작한지 50여년, 이 '게임의 법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법칙을 일찍 깨우친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이 드라마와 경영의 함수관계를 이해 못한 점잖은 사람들은 실패한다.

그토록 중요한 연속드라마 성공의 비결은 어디서 오는가. 작가다.

재능 있는 한 사람의 인기작가의 손놀림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드라마제작에는 PD를 정점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동된다. 하지만 행인지 불행인지 대본을 집필하는 한 사람, 글 쓰는 이의 비중을 말할 길이 없다.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2.3주분 대본이 사전 집필상태에서 출발한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그것은 잠깐이고 곧 까먹는다. 대개는 그 주 대본이 녹화 4.5일전에 나온다. 늦는 작가에 따라, 심하면 그 날 녹화분이 그 날 아침 배우들 손에 전달되는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가끔 벌어진다. PD 홀로 큐시트를 짜고, 리허설, 녹화 등으로 이어지는 빠박한 일정으로 정신을 못 차린다. 대본을 검토하고 수정과 방향 전환을 주문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거의 100퍼센트 작가가 써온 페이스대로 이 장거리 마라톤은 굴러간다. 미국 CBS의 LA스튜디오 Television City의 '소오프 오페라'(일일연속극) 제작현장을 처음 찾아갔을 때다.

“대본이 녹화 며칠 전 연기자에게 전달되나요?”

“빠르면 5일전, 늦으면 3일전에도 나온다.”

“네?”

선진국 미국에서도! 전혀 의외였다. 대본을 일찍 넘기는 경우, 연출자의 성가신 수정 요청이 귀찮아서 작가들이 일부러 늦장부릴 때도 있다고 했다.

이 딜레마를 헤쳐 나갈 방도는 없는 것일까.

연속드라마의 전작제가 PD들의 꿈이다. 사전 대본 집필 후 제작에 들어가면, 평자들은 전작제가 드라마의 질을 높이는 첨경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연속극의 전작제는 요원할 뿐이다. 작가의 타성 이전에 연속드라마는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많다. 그것을 나무랄 일도 아니다. 오히려 연속극의 장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보다 우리가 도입할 것은, 선진국처럼 두 사람 이상의 공동 집필과 공

동 연출이다. 한 사람의 프로듀서 밑에 여러 작가와 몇 명의 연출자가 공동 투입돼, 격주 또는 3~4주 간격으로 PD와 작가가 순환 연출 또는 집필하는 것을 말한다. 드라마의 전체 흐름은 Chief 프로듀서가 조정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됐다. 이른바 프로듀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자존심은 공동 집필을 목숨 걸다시피 거부한다. 1970년대 초기에 외국의 흥내를 낸답시고 공동 집필을 종용했으나 실패했다. 작가는 고사하고 회사 직원인 일부 PD들조차 연속드라마의 격주 연출제 도입에 처음에는 저항했다. 지금은 대형 특집 또는 단막 드라마에서는 우리도 복수이상 의 연출자가 투입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오래 전부터 PD가 복수 투입되고 있다.

작가는 아직도 거의 요지부동이다. 어차피 그 길은 우리 방송이 갈 길이 다.

이미 그 분위기는 원하든 안하든 서서히 성숙돼 가고 있다. 일단 연속드라마가 출발하면 PD가 대본의 좋고 나쁨을 시비할 재량의 폭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PD는 교체할 수 있어도 작가는 바꾸기가 어렵다. 가끔 작가가 PD의 교체를 요구하는 불상사가 보도되는데, 이런 경우 방송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쉬운 PD를 교체한다. '좋은 대본을 PD가 잘 못 연출해서 망칠 수는 있어도, 나쁜 대본을 유능한 PD가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진실이다. 해서 영화는 감독의 예술, 연극은 배우의 예술,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연출자 김종학이 송지나라는 유능한 작가를 만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공화국시리즈의 고석만 PD는 작가 김기팔, 이상현과 손잡고 성공했으나, 작가가 교체되면서 그 후속 정치드라마는-다른 요인도 있지만-소리없이 사라졌다. 연출자는 좋은 작가를 만나야한다. PD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좋은 작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있다. PD가 유능하면 유능한 인기작가가 모여들게 마련이다.

편성 상 최고로 중요한 전략프로그램인 연속드라마, 이 드라마의 성공여부는 한 사람의 작가에게 거의 달려 있다. 과장하면, 방송사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 작가에게 거의 매달려있다는 이 '가공할만한' 현실. 방송사가 안

고 있는 최대의 취약점,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최고의 방송을 원한다면, 최고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PD들은 유능한 인기 작가를 확보하려고 전전긍긍한다. 방송사는 일급 작가들을 전속하려고 거액의 계약금을 내놓는다. 작가전속을 위한 방송사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리우드에는 '모든 것은 시나리오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가? 답답한 것은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외부는 거론할 것도 없고, 내부에서도 드물다는 데 있다. 외부에서 온 신입 최고경영자인 사장을 설득, 이해시키는데도 경우에 따라 시간과 인내와 오해의 곤육을 치러야한다.

“왜 신인 작가를 키우지 않는가?”

“왜 특정 작가를 감싸고 도는가?”

PD들은 말문이 막힌다. 기성작가보다 신인부터 출발한다. 신인작가를 키우려 하지 않는 PD가 어디 있단 말인가!

외부출신 사장은 취임 초는 이상주의자, 1년쯤 지나면 현실주의자가 된다. 비로소 알만하면 사장은 떠나고 새 사장이 부임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Ⅳ

MBC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1989년을 전후한 노사갈등으로 참사 이래 최대의 격랑을 맞고 있었다. 방송은 당연히 곤두박질하고 있었다. 최창봉 사장이 이끄는 새로운 팀이 구성됐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명색이 방송전문인이라고 사장자리에 앉았는데, 방송 일에 제대로 눈 한번 돌릴 새가 없다.” 최 사장의 하소연이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방송이 존재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프로그램으로 정면 돌파하는 길 뿐이다. 방송일은 모든 게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실마리는 드라마에서 풀어야한다. 능력 있는 작가 확보가 우선이다.

하나의 카드로서 김수현은 아직도 유효하다.

어느 날, 최 사장이 김수현을 만나 “MBC를 위해 계속 일해 달라”고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김수현이라는 약은 비싸서 회사 내부에서 싫어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고 그는 김수현답게 한마디 꼬집는 걸 잊지 않았다.

미묘한 기류가 사내에 형성되고 있었다.

‘꼭 김수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말은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말은 더 설득력을 지닌다. 비록 지난 정권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더라도, 과거에 성공하고 ‘영광’을 오래누린 사람들을 5공 추종세력으로 동일시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착시현상이 한 때 있었다. 지난 시대에 잘 나가던 PD들, 작가들, 연기자들, 간부들이 이 부류에 속했다. 아무도 그런 걸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무거운 구름이 한동안 서로의 서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작가에 대한 재계약방침이 결정됐는데도 간부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계약 만료기한이 한두 달 그냥 흘러가면서 김수현은 독촉하고 나섰다.

“MBC가 어려운 게 눈에 보여요. 그래도 너무들 해요. 계약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이번 토요일까지 결정 안 해 주면 저는 저 갈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KBS에서 많은 돈을 싸들고 매일같이 다투고 있었다.

계약이 간신히 성사되고 1990년 초, 김수현의 주말연속극 ‘배반의 장미’가 시작된다. ‘사랑과 야망’ 후 3년 만의 일이다. 모두 새 드라마가 지금의 수령을 벗어나는 돌파구가 되리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비장의 보검을 빼어든

듯 들떠있기조차했다.

한 달이 지났다. ‘앞으로 될 거야’ 두 달이 지났다. ‘막연한 불안감’ 석 달이 지나면서 ‘김수현이라는 묘약도 안 먹힐 수 있다는 당혹감’

방송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매체다. ‘배반의 장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 드라마다. 우리나라는 미스터리 드라마가 미개척지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모두 겁을 먹는다. 가까운 일본, 미국에서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작가는 의욕적으로 대들었다. 종래의 그의 특기인 경쾌하고 발랄한 대사, 예리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빼고 드라마는 전개되었다.

‘실패작?’ 우리의 정서와 풍토의 한계를 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일렀는지 모른다.

물론 그의 작품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패라는 뜻이다.

김수현은 시청자와 MBC에 부담을 느꼈다. 시청률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관념일 수도 있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버린 종전 스타일로 돌아간다.

코믹 흥드라마. 그래서 등장한 것이 1991년의 ‘사랑이 뭐길래’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배반의 장미’는 작가가 생전 처음 공을 가장 많이 들인 작품이고 ‘사랑이 뭐길래’는 쉽게 편안하게 쓴 대본이라고 했다. 드라마 흥행의 불가사의.

폭발적인 반응이란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시청률을 줄곧 유지한 이 드라마는 전체 방송 1위의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일이 없었다.



‘사랑이 뭐길래’의 평균 시청률은 64.9%. 이 수치는 역대 드라마 사상 부동의 1위다. 그 기록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제목은 당시 유행어가 됐고, 지금은 일상어가 됐다. 그로부터 8년 후, 중국에 수출돼 대륙의 시청자들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이른바 중국 한류의 원조가 바로 이 드라마다.

MBC는 이 때쯤에 정상에 되돌아왔다. 90년 초의 일련의 미니 시리즈 드라마의 성공에 이어 ‘여명의 눈동자’, ‘동의보감’ ‘공화국시리즈’ 그리고 ‘사랑이 뭐길래’ 등으로 ‘드라마 왕국’ 부동의 이미지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승리에 도취했을 때 더 긴장하고 더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자주 잊는다. ‘사랑이 뭐길래’를 끝내고 김수현은 20년 몸담아 온 MBC를 떠난다. 그

러나 아무도 그를 붙잡지도 않았고, 반년이 지나도록 그가 떠난 사실조차 감지 못하고 있었다. 공중파나 케이블 등 방송이란 이름이 붙은 곳에서는 그를 잡으려 난리였다. 유독 진정한 MBC만이 그를 외면한다.

방송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아끼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애정을 소홀히 하면 방송도 무너진다. 그 때 이미 수년 후의 MBC 몰락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1996년, 이득렬 사장이 바닥권에서 해매는 최악의 MBC를 전임자로부터 인계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장장 10년의 기록을 세운 이 사장은 연속드라마가 ‘뉴스데스크’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익히 알고 있었다.

그가 MBC로서는 6년 만에 김수현을 만난다.

“MBC는 아직 멀었어요. 더 망해 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그의 독설에는 깊은 한이 맺혀 있었다. 그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그래도 ‘이 사장님이 계속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MBC를 떠난 김수현은 SBS와 KBS를 두루 거치며,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또 건재함을 과시한다. 그때마다 시청률 경쟁에서 MBC를 오래 오래 괴롭혀 왔다.

Total system redundancy
No single point of failure.

VISTA V™

VISTA
QUAD
STAR

Vistronic

FaderGlow™

INFINITYSERIES™

Loudness
metering

Finally, metering
that makes sense

VISTA FX
Reverb and effects

http://www.idyd.kr

동양 디지털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새로운 기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1106호 전화 02)705-1332~3 팩스 02)705-1334

STUDER
by HARMAN